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별호】

주체101(2012). 1
3
화요일
음력 12. 10

6.15공동선언의 기치아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앞당기자!

민족의 대국상에 칼질을 한 리명박역적패당은 준엄한 심판을 받고 파멸에 처하게 될것이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

알려진바와 같이 리명박역적패당은 민족의 대국상을 계기로 반공화국대결흉심을 더욱 드러내면서 우리의 존엄을 심히 모독하고 남조선 각계층의 조문을 악랄하게 탄압하는 만고대죄를 저질렀다.

괴뢰역적패당은 우리의 중대보도가 나가자마자 괴뢰군에 《비상경계령》을 내리고 청와대와 행정부, 처들을 비상근무태세에 돌입시키는 한편 《북지도부와 주민분리대응》을 운운하면서 무엄하게도 우리의 철통같은 일심단결을 흔들어보려고 온갖 음흉한 술책에 매달렸다.

역적패당은 남조선의 광범한 각계층의 조의방문을 가로막고 조의문을 가로채여 칼질을 하며 분향소를 설치하는것마저 야수적으로 탄압하였을뿐아니라 리희호, 현정은일행의 조의방문에 동행하려던 6.15핵심관계자들을 강압적으로 떼놓아 끝끝내 오지 못하게 하였다.

특히 괴뢰패당은 군사분계선일대와 서해 5개 섬주변에서 전쟁소동에 더욱 광분하는것도 부족하여 인간쓰레기들을 내몰아 애도기간에 여러차례나 삐라들을 풍선에 매달아 살포하면서 눈물의 바다를 이룬 우리 인민의 비통한 가슴을 더욱 아프게 허비여놓는 등 인간으로서는 차마 상상조차 할수 없는 비렬한 도발도 서슴지 않았다.

이것은 괴뢰역적패당이야말로 동족대결에 환장이 된 나머지 리성을 완전히 잃고 인간이기를 그만둔 극악무도한 야만이나 다름없다는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이미 괴뢰패당의 반인륜적망동에 대해 준렬히 경고도 하고 북남관계에 미칠 위험천만한 후과에 대한 경종도 울렸다.

그러나 괴뢰패당은 그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으며 결국은 북남관계를 푸는것이 아니라 완전히 끝장내는 길을 선택하였다.

리명박패당의 대결적정체와 불순한 심보가 깡그리 드러난 이상 이제 그들과 더 왈가왈부할것도, 그들에 대해 더 지켜볼것도 없게 되였다.

이른바 《원칙고수》라는 반통일대결적궤변을 내들고 한피줄을 나눈 동족의 대국상마저 불순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로 여기며 북침과 모해의 칼을 내들고 동포형제와 끝까지 해보려고 날뛰는 천하무뢰한, 조상전래의 초보적인 례의범절도 모르는 랭혈한들이 바로 리명박괴뢰패당이다.

가장 큰 상실의 아픔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몸부림치는 동족의 가슴에 칼을 박고 우리의 존엄을 무엄하게 모독한 역적패당의 반인륜적, 반민족적죄악은 동서고금에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것으로서 그들이 얼마나 무지막지한 정치깡패들이고 추악한 패륜패덕의 무리인가 하는것을 그대로 보여준다.

6.15이후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어온 동포애적뉴대를 처참하게 란도질한 역적패당의 만고죄악은 17년전 《문민》파쑈패당이 저지른 반민족적범죄를 훨씬 릉가하는것으로서 우리 군대와 인민, 온 겨레로 하여금 분노의 치를 떨게 하고있다.

이 모든 범죄적망동의 주모자, 악의 진범인은 다름아닌 리명박역도이다.

리명박역도는 겉과 속통까지 동족에 대한 극단적인 적의와 대결광기가 꽉 들어찬 극악한 반통일, 반민족, 친미파쑈광이다.

이런자가 있는 한 북남관계에서 아무것도 바랄수 없고 재난과 화밖에 가져올것이 없다는것이 명백하며 이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이 찾은 최종결론이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우리 군대와 인민, 온 겨레의 피터지는 분노를 대변하여 우리의 최고존엄을 모독한 역적패당의 반인륜적, 반민족적죄악을 절대로 용서치 않을것이며 리명박패당이 만고대죄를 사죄하지 않는 한 부득불 최후결판을 내는 길밖에 없다는것을 단호히 천명한다.

하늘을 거역한자 천벌을 면치 못한다.

이 세상 가장 못된짓만을 일삼고 동족의 대국상에 칼질을 한 괴뢰역적패당은 반드시 력사와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파멸에 처하게 될것이다.

주체100(2011)년 12월 31일
평 양

민족의 최고존엄을 모독한 씻을수 없는 죄악

이번에 민족최대의 국상과 관련하여 리명박패당이 저지른 가장 큰 죄악의 하나는 이른바 《분리대응》을 떠들면서 민족의 최고존엄을 감히 모독하고 총부리를 겨눈데 있다.

《분리대응》이란 《북의 지도자와 인민을 갈라보고 따로따로 대응》한다는것이다.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은 민족의 어버이의 비통한 서거와 관련하여 응당한 조치를 취할대신 모든것을 외면하면서 민심을 반영한 조의는 《북정권과 분리된 주민들에 대한 위로》로 격하시키고 각계의 조문단파견요구는 《남조선사회의 혼선》을 구실로 차단하면서 공화국의 수뇌부와 인민들을 리간시키려고 어리석게 책동하였다. 한편으로는 《선별방문》과 《제한된 답례조문단파견조치》로 민족의 어버이품으로 오고파하는 각계층의 북행길을 전면차단하는 대역죄를 저질렀다.

더 나아가 그들은 이른바 《천안》호침몰사건, 연평도포격사건을 끄집어내여 《최종책임》이니 뭐니 하며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직접 헐뜯고 모독하는 천추에 용납 못할짓까지 하였다.

그들이 남조선의 정계와 각계층의 조의방문을 악랄하게 가로막다 못해 이 단체들이 북에 보낸 조전, 조문을 사사건건 검열하여 민족의 어버이를 추모하는 《서거》라는 표현자체를 삭제하는 등 조의문에도 칼질하는 파쑈망동을 부린것도 이미 폭로된 사실이다.

이 모든것은 실로 상상을 초월하는 망동이고 하늘이 노할 엄청난 죄악이 아닐수 없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은 한평생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고 위대한 생의 마지막순간에조차 인민을 위해 12월의 맵짠 눈보라를 헤치시며 초강도현지지도길에 계신 절세의 위인이시였고 참다운 인민의 지도자이시였다. 또한 민족분렬을 그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며 조국통일을 위해 하실수 있는 모든것을 다 하시였고 두차례의 력사적인 평양상봉으로 민족이 화해, 협력하여 통일에로 나아가는 새 력사를 창조하신 조국통일의 구성이시였고 민족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였다.

한마디로 그이는 민족의 최고존엄이시였고 공화국의 국가와 인민의 생명이시였으며 강성부흥과 조국통일의 찬란한 기치이시였다.

온 겨레가 민족의 최대국상에 커다란 슬픔과 비분을 금치 못하며 피눈물을 흘리고 대성통곡한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은 민족의 최고존엄을 모독하는 망동을 부리였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죄악은 없다.

이번 대국상기간 세계앞에 보여준 전군적이며 전민적인 추모모습은 자기 령도자의 두리에 일심으로 뭉친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의 대단결의 모습이며 그 무엇으로써도 깨뜨릴수 없는 북의 체제의 불패성의 과시이다. 공화국에서 령도자와 인민은 떨래야 떨수 없는 하나의 유기체이고 그것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것이다.

민족의 어버이를 잃고 하늘이 무너지는것과 같은 크나큰 상실의 아픔속에 목놓아울던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의 망동에 너무도 분격하여 저마다 이를 갈고있다.

저런 무엄하고 인륜도덕도 모르며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역적패당과는 한하늘을 이고 살수 없다.

겨레의 분노를 모아 천벌을 내려야 한다.

누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역적패당을 준렬히 단죄규탄하고있다.

리명박보수집권세력은 이번에 력사와 민족앞에 자기들이 어떤 씻을수 없는 만고죄악을 저질렀는가를 똑바로 알아야 한다.

이에 대해 사죄하고 용서를 빌지 않는다면 공화국은 이미 천명한대로 부득불 최후결판을 내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게 될것이다.

허성철

《문민》독재자보다 더한 악한

민족의 어버이를 애통하게 잃은 슬픔에 몸부림치는 겨레에게 갖은 못된짓을 다한 파쑈 《실용정권》의 몸서리치는 악행들은 세월이 흐른대도 지워질수 없고 결코 용서받을수 없는 만고죄악이다.

동족의 뜻밖의 불행을 접하게 되였을 때 남조선의 선량한 인민들은 정파와 계층을 초월하여 누구나 같은 피줄로서, 통일을 함께 이루어야 할 상대로서 같이 가슴아파하고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였다.

이에 불안을 느낀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은 날로 고조되고있는 민족의 어버이에 대한 추모열기를 가라앉혀보려고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

경찰과 극우깡패들을 내몰아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교내에 설치한 분향소를 강제로 철거시키는 망동을 부리였는가 하면 서울시의 한복판에 분향소를 꾸리는 진보적인 통일운동단체성원들에게 달려들어 폭행을 가하고 시설물들을 짓뭉개는 야만의 짓을 하였다.

이뿐이 아니다. 남조선보수당국은 인터네트에 설치된 싸이버분향소들을 페쇄하고 추모글을 올린 가입자들을 대대적으로 수사하는 광적인 탄압소동을 벌리였으며 자기 신념과 량심에 따라 평양을 조의방문한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련대 공동대표를 사법처리하겠다며 기염을 토하였다.

실로 온 겨레의 격분을 자아내는 망동이라고 하지 않을수 없다.

경애하는 장군님은 한평생 겨레를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으며 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위해 커다란 로고를 기울이시고 민족사에 길이 빛날 업적을 쌓아올리신 민족의 어버이, 조국통일의 구성이시였다. 온 겨레가 지지찬동하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마련해주시여 민족분렬사에 일찌기 없었던 화해와 협력, 단합의 새시대를 펼쳐주신분도 장군님이시다. 이런분을 뜻밖에 잃은것은 우리 겨레에게 있어서 너무도 크나큰 상실이고 땅이 통채로 꺼지는것과 같은 최대의 아픔이 아닐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당국이 초보적인 조의표시는 못할망정 각계 인민들의 조의방문길을 가로막고 나아가서 각계층 인민들과 단체들의 추모행동마저 야수적으로 탄압해나선것은 민족의 대국상에 대한 도전이고 공화국에 대한 엄중한 정치적도발행위였다.

지난 애도기간에 공화국의 각지는 낮과 밤을 이어 슬픔에 잠긴 인민들의 애도의 물결로 차고넘쳤다. 남조선에서도 민족의 어버이를 잃은 비통한 마음을 담아 각계층이 조전과 조문들을 련이어 보내여왔다.

그런데 남조선당국은 야만적인 행위로 커다란 상실의 아픔에 잠겨있는 겨레의 가슴에 칼을 박았다. 이것은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의 가슴에 지울수 없는 상처를 남긴 용납 못할 죄악이 아닐수 없다.

남조선당국이 극도의 동족대결정책을 실시하여 좋게 발전하던 북남관계를 오늘의 파국적인 지경에로 몰아간 장본인이라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이것만도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죄악인데 그 우에 남조선당국은 천벌을 받을 엄청난 죄까지 저질렀다. 뜻밖의 비보가 전해지자 《비상근무태세》, 《경계태세강화》로 대응하면서 극도의 대결광기를 부리였으며 동족의 최대불상사를 추악한 대결목적에 악용하려는 천추에 용납 못할짓까지 저질렀다.

민족의 대국상과 관련하여 남조선에서 벌어진 동족대결과 조문탄압소동은 1990년대에 《조문파동》으로 북남관계를 파국에로 몰아갔던 《문민》독재자의 만행을 훨씬 릉가하고있다.

현실은 리명박역도에게 민족의 피도 없고 인륜도덕도 없으며 오직 동족대결의 광기만이 살아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온 겨레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고있는 남조선보수패당의 반인륜적만행은 두고두고 만인의 지탄을 면치 못할것이다.

본사기자 김철호

북남관계를 끝까지 망치려는 대결넉두리

지난 2일 남조선의 현 집권자가 《신년연설》이라는데서 또다시 악의에 찬 동족대결망발들을 늘어놓아 겨레의 격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그는 《북이 진행중인 핵관련활동을 중단하는대로 6자회담은 재개될수 있을것》이라고 주제넘은 소리를 하였는가 하면 《북의 도발가능성》이니, 《철통같은 안보태세 유지》니, 《강력한 대응》이니 뭐니 하며 극도의 대결분자로서의 본색을 다시 드러냈다.

지난 4년동안 북남관계를 력사상 최악의 파국상태에 몰아넣은 장본인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임기동안에 계속 동족대결과 전쟁열을 고취하려고 최후발악을 하고있는것이다.

집권후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전면부정하고 《흡수통일》야망이 그대로 비낀 《비핵, 개방, 3 000》이라는것을 들고나와 좋게 발전하던 북남관계를 과거의 대결시대에로 되돌려세운것이 바로 리명박이다.

리명박을 위시한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은 지난 기간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공화국이 내놓은 대화제의들에 대해서는 《진정성》과 《원칙고수》를 운운하며 전면거부해나섰다.

남조선보수당국은 모략적인 함선침몰사건을 꾸며내고 이를 기화로 하여 북남관계를 완전파탄내였으며 외세와 야합하여 북침전쟁연습에 광분하였다.

남조선군부호전세력의 광란적인 전쟁열은 도를 넘어 2010년 11월에는 공화국의 신성한 령해에 포사격을 감행하는데까지 이르렀다. 하여 북남관계는 포탄이 오가는 최악의 전쟁접경상태에 이르렀다.

남조선보수당국은 《천안》호사건이후에는 극우보수단체들과 함께 남조선군부까지 직접 내세워 삐라살포와 라지오방송과 같은 너절한 심리모략전을 더욱 악랄하게 감행함으로써 공화국의 일심단결을 허물고 《체제전복》기도를 실현해보려고 어리석게 책동하였다.

역적패당의 무분별한 동족대결광기는 지난해 12월 공화국의 중대보도가 나간 이후 절정을 이루었다.

우리 겨레가 민족의 어버이, 절세의 위인을 잃은 커다란 슬픔에 잠겨있던 때에 남조선당국은 슬픔을 함께 나누려는 남조선 각계층의 조의방문길을 악랄하게 가로막아나섰을뿐아니라 저들의 반인륜적망동을 《원칙훼손》이니, 《남남갈등유발》이니 뭐니 하는 얼토당토않은 궤변으로 변명하며 조문열기를 짓눌러버리려고 발악하였다.

지어 보수집권세력은 《북지도부와 주민을 분리》시킨다는 교활한 대결흉심이 들어찬 넉두리로 공화국의 철통같은 일심단결을 건드려보려고 비렬하게 놀아댔다.

이 모든 천인공노할 죄악의 장본인인 리명박이 제가 저지른 대역죄에 대한 티끌만 한 뉘우침과 사죄도 없이 온 겨레의 규탄을 받고 만신창이 된 《비핵, 개방, 3 000》을 집권 마지막해의 《신년연설》이라는데서 또다시 력설한것은 그에게 북남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조금도 없고 끝까지 동족과 대결하려는 흉심만 가득차있다는것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역도의 《신년연설》에 대해 남조선의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선북핵폐기〉, 〈도발시 강력대응〉 등 이미 파탄난 대북강경책을 또다시 고수》, 《임기 마지막해까지도 〈한〉반도 긴장완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겠다는 리명박의 독단과 반통일의지에 통탄하지 않을수 없다.》, 《〈정부〉의 〈대북정책〉전환을 거듭 요구하며 6.15와 10.4정신으로 돌아갈것을 촉구》한다며 분노를 터뜨린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오늘에 와서 모든것이 더욱 명백해졌다. 대결과 전쟁을 추구하는 악마인 리명박이 권력의 자리에 앉아있는 한 북남관계개선도, 민족의 화해와 평화, 통일도 이룩할수 없다는것이다.

북과 남의 우리 겨레는 민족의 지향에 역행하여 끝까지 동족대결의 길로 줄달음치는 역적패당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것이다.

김철민

리명박《정부》를 규탄하는 남조선 각계 인민들

* *

주소: 평양 통일신보사 (해외동포여러분의 서면련락주소: 조선평양 국제우편국사서함 제150호) 전화: 책임주필실 366-0732, 편집국 366-0522

편집위원회